

# 카드사, 포인트 없애고 할인혜택 줄인다

## 주유할인금액 등 부가서비스 축소

### 고객들 “권할뎨 언제고” ... 일방통보에 분통

최근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갔던 김모(여·41)씨는 관람료 카드할인을 놓고 기분 상하는 경험을 해야했다. 결제를 위해 제출한 카드의 할인률이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할인 혜택을 강조하며 계약을 중용하던 수익이 악화되자 서비스를 축소하는 카드사의 행태가 괴심했다.

직장인 장모(30)씨는 카드를 만든 지 반년밖에 안돼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는 안내문을 받고 기분이 언짢았다. 가입할 때 혜택 축소에 대한 아무런 공지도 없었는데 앞으로 다른 혜택들도 또 줄어들 것 같아 해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초 고액정보 유출로 한바탕 흥을 차렸던 카드사들이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자 슬그머니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있

어 고객분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환카드는 ‘외환 2X카드’ 고객들에게 7월달 요금고지서를 보내면서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6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2X 알파·베타 카드에 대해 월간 할인한도와 전월실적을 변경하고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형 영화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세트메뉴도 중단되고 올 11월부터는 주유서비스 할인 금액도 줄어들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내년 1월부터 VIP카드 중심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다. 우선 ‘라운

과 공휴일에 제공하던 롯데호텔 월드점 발렛파킹 무료서비스를 중단한다. 또 르노삼성자동차 멤버십 S클래스·선볼카드는 삼성화재 에너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3만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중지한다.

현대카드도 최근 들어 부가혜택을 줄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현대카드M 카드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주유서비스 할인 금액을 내년 2월 말부터 1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축소한다. 현대M계열 카드에 제공되던 ‘세이프 오토’ 서비스도 변경된다. 차량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아 사용하는 이 서비스의 적립률을 0.5%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 수 감소로 수익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 악화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해 고객을 모집한 뒤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시 초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광고하던 카드사들이 일정 고객을 모집한 후 혜택을 줄이는 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고객이 누려야 할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면 연회비를 비롯해 고객이 내는 비용도 마땅히 줄어들어야 한다”며 “카드사들은 혜택을 줄임으로써 줄어드는 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혜택 유지기간을 늘리기로 방침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카드 유효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3.22 (+0.86)	▲ 금리 2.54% (+0.02)
▲ 코스닥 558.18 (+6.45)	▼ 환율 1021.20원 (-7.70)

## 광주은행 상반기 분쟁조정신청 ‘제로’

### 국민은행 241건 최대

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해 고객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했지만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 분쟁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월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202건으로 작년 상반기(874건)보다 37.53%나 늘었다.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범원소송으로 간 사례도 5건에서 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발생한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소비자

들의 권익 향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196건), 농협(165건), 우리은행(161건), 신한은행(137건) 등 순이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진 곳은 기업은행이다. 작년 60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우리(57.8%), 농협(48.6%) 등도 고객과의 시비가 많아졌다. 지방은행중에는 경남은행의 분쟁조정이 1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을 비롯해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농협광주본부, ‘빛찬들안심꾸러미’ 배송 활성화 모색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조합장 남하룡)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빛찬들안심꾸러미’배송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소비자시민모임 광주지부(대표 공경화) 관계자를 초청, 의견을 나누고 회원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한 사업내실화로 보다 알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경화 대표 등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

(10종 내외)을 하나의 꾸러미로 포장해 회원 가정으로 주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다만 소비자의 기호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를 넓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관련 농협광주지역본부는 회원이 늘고, 품목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순익분기점인 회원 500명 정도가 확보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반영해 꾸러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기아차 노조 3년 연속 파업하나

## 어제 광주공장 등 투표 본격교섭은 다음주부터

기아자동차 노조가 3년 연속 파업에 다가갔다. 기아차는 지난 2010~2011년 모두 쟁의행위 없이 임금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올해는 2012·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파업사태에 돌입할 태세다.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는 올해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14일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들어갔다. 투표는 오전 11시 시작, 오후 8시20분까지 진행됐으며 광주공장 등 전제조합원 3만4000여명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도 14일 노조회보 등을 통해 가결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결되면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장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18일 쟁의대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

다. 하지만 가결되더라도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좀 더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관계자는 “교섭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는 이뤄진 바 없어 임정자를 좀처럼 몇 차례 교섭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요구안 검토는 계속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주 3~4회의 본격적인 본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614원(호봉승급금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체협상에서 8×8 근무제 도입, 완전월급제 쟁취(사급제 대신 월급제 전환), 회사 수익의 30% 성과급 요구, 국민연금 지급시기까지 정년 연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상여금 800%(현 750%) 지급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노사는 12차례의 교섭을 거쳐 단협 사항 130여개 가운데 66개 가량에 대해 합의본 상환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며 최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쟁의행위가 실시되면 통상적으로 산업 거부와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투쟁의 강도가 높아진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올 첫 출하 햇사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올해 첫 출하된 햇사과(홍로)가 선보였다. 햇사과는 5개에 1만원에 판매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기아차 지속가능보고서 ‘MOVE’ ARC 어워드 금상

기아자동차는 14일 2014 지속가능보고서 ‘MOVE’가 세계적 권위의 연차보고서 경영대회인 ARC 어워드(Annual Report Competition Awards)의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MOVE는 지난달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에서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대상(Platinum)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머콤(MerComm)사에서 주관하는 ARC 어워드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등 잇달아 해외 유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3월 ‘We Connect’ (자동차를 통한 다음 세대의 연결)를 주



제로 12번째 ‘Move’를 받긴 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아차의 대응활동은 물론 미래기술과 사회공헌 사업 등 경제, 환경, 사회적 경영 성과를 집지 형태의 보고서로 알기 쉽게 담았다. 또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전문기술용어를 쉽게 풀어 써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기아차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비덕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점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물품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www.yh-bus.com

##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